

# 전북연구원, '사회적농업' 확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사회적 이해 교육 선제돼야”

### “사회적 농장 육성 체계화 등 위해 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요” 강조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농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교육,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주브리핑 '전북 사회적농업 활성화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통권 241호)을 발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전북 취약계층이 사회통합 할 수 있는 사회적농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탈리아에서 기원된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은 '치유농업'과 혼용돼

사용하고 있으나, Iacovo와 O'Connor(2009)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의 교육, 돌봄, 고용을 촉진하거나 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검증하며, 2021년 기준 전국 60개 '사회적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이 10개소로, 사회적 농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책임 맡은 조원지 박사(산업경제연구부)는 "전북 도민들이 국내에서 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사회적농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등 정확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며 "사회적농업 확산에 사회적 이해 교육이 선제돼야 한다"고 제

안했다.

이어, "전북도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정책적, 사회적으로 사회적농업 실천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면서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박사는 "전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농장 육성, 운영·관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여건을 반영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업인 수도권 경영 거점으로'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

코로나19에도 안전 공간으로 '주목'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도내 기업인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은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 라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꾸준한 회의실 이용실적(전년대비 0.3%증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윤원중 선임기술원은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꼭 필요한 대면 회의를 위해 외부이동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코로나19 시기에 꼭 필요한 공간이다"며 "수도권 기술사업화 회의의 공

간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기업의 수도권 출장 애로사항의 해결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실 정원은 50% 이내로 제한하며, 8인실은 4인까지, 10인실은 5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내 음료반입 금지 및 음료제공이 중단된다.

회의실 이용예약 및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gj-biz.or.kr) 또는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도, 어린이집 교사간

### 수당 격차 완화

전북도가 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수당 격차를 완화한다.

도는 월 34만원씩 지원하던 영아반 교사 수당을 올려 월 36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아(0~2세)반 교사이며, 이는 그간 발생했던 유아반과 영아반 교사들 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영아반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 수당은 국가와 도에서 각각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유아반 교사 수당이 41만원인 반면, 영아반 교사 수당은 34만원이다.

이에 전북도는 2021년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월 36만원으로 2만 원인 상향으로써 유아반교사와의 수당 격차를 줄인다. /유호상 기자



민주 설 민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른쪽은 이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 고로쇠 수액 채취 위한 도유림 사용 허가

### 전북도, 내달 31일까지

전북도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유림 사용을 허가한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소는 농한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7개 마을 도유림 약 7ha에서 웰빙 건강음료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이어져 많은 양이 채취되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본격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돼 산촌 주민의 농한기 소득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내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해당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수액의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진

안군, 장수군 등 7개 마을에서 고로쇠 자생지 1,900본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게 돼 5,400만원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200여본의 나무에서 4만5,000리 채취로 6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어 고로쇠 수액의 산촌 지역주민의 불특 소득원으로 특별히 자리 잡고 있다.

고로쇠나무는 해발 100~1,800m 사이 계곡부의 습윤지에서 잘 자라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은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여성산후 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갈습,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위(健胃), 이뇨(利尿), 체력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

전북도 도유림 대부분은 고원지대 청정지역인 산간 오지로, 고로쇠에 갈륨과 마그네슘 등 무기물과 당분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아 전국적 선호도가 높다. /유호상 기자

## 보호아동 권익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이용호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소기업·소상공 판로확대법도

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 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호시설 전원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0일, 보호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폐쇄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호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총선공약이행법안으로써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물품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을 우선 조달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아동복지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함께 지내



던 아동들은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시설 폐쇄의 위법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들이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사업제품 판로지원법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공동으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특히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을 높이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판로 수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이 가능해지는 한편, 명실공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강명병 의심되면 '1339'로

## 전북도, '공립 나무병원' 연중 운영

### 무료진단 원할 경우 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로 상담

전북도는 도내 아파트·가정 정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목의 병해충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라북도 공립 나무병원'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루수, 공원 등 녹지와 아파트·가정 정원, 학교숲 등 생활권 수목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조경수에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공립 나무병원(진안군 백운면 소재)은 현장조사와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진단반 4명과 검사·분석 연구를 담당하는 검사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목 병해충에 대한 무료진단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사진, 나무식재 시기, 피해상황, 관리내역 등을 첨부해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http://forest.jb.go.kr)에 접수하거나 전화(063-290-5442)로 상담하면 된다.

지난 2012년 1월에 개원하며, 첫발을 내디딘 공립 나무병원은 매년 150건 이상의 운영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도민들의 나무병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90%로 나타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 907호